

복학생 현은 졸업 영화 제출 기한을 앞두고 있다. 다들 최종 마스터링 작업 중인데 아직 촬영분이 남은 건 졸업반을 통틀어 현 뿐이다. 현은 영화를 찍기 위해 일 년을 팝콘을 튀기며 야간 알바를 했다.

오늘은 현이 고대해 온 마지막 씬 촬영일이다. 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수십 번도 넘게 확인한 일기예보를 다시 확인했다. 날씨는 괜찮을 것이다. 소품 리스트도 다시 확인했다. 빠진 건 없다. 오늘의 장소인 대교 인근 교통상황도 시간 단위로 알람이 오도록 설정해 두었다. 계획한 대로 이 씬을 찍고 편집해 끼워 넣으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완성돼 있다.

※

현과 동고동락해온 동기, 후배들로 이뤄진 스태프들은 이 보충 촬영을 앞두고 돌림 노래처럼 이상하게 “불길한데?” 농담을 해왔다. 소품으로 짐찍어둔 거울이 깨진다거나, 삼 일 연속으로 까마귀를 마주친다거나, 식사 기다리며 본 타로에서 현을 포함한 헤드스텝 모두 “파괴”, “파멸”, “죽음” 카드가 나온다거나… 그럴 때마다 누가 먼저랄 거 없이 “불길한데?” 라고 외치는 것이다.

현은 미신을 믿지 않기도 하고 더욱이 4학년 때까지

여기저기서 구른 짬도 있는데, 그런 근거없는 징크스에는 겁도 나지 않았다. 이 영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만큼 이런저런 돌발 상황도 임기응변으로 돌파할 자신도 있었다. 개들이 그럴 때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비타민이나 손선풍기를 보내주거나 빙수를 한 그릇씩 사먹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

프리랜서 모델 채는 2주 전 현에게 차였다. 채는 현이 좋았지만, 현이 잠시라도 자신을 불안하게 내버려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채는 약 9시간 정도 연락이 되지 않은 현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와의 모든 채널을 모조리 차단해버렸다.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채는 만나질 만에 다시 차단을 풀고, 여러가지 채널에 쌓여 있을 현의 공손한 사과, 메시지 등을 기다렸지만 아무 기척도 없었다. 채는 그걸 또 믿을 수 없어 차단하고, 몇시간 후 다시 해제하고를 반복하며 현의 동태만을 살폈다.

채는 기다리다 못해 다음날 현에게 전화를 했지만, 현은 싸늘한 문자(“왜 이제 와서?”)만을 남겼고, 채는 그제서야 구구절절 사과를 했지만 현은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만을 보냈다. 채는 그런 냉정함이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자비 없이 변명할 기회도 없이 차버린다고?

채는 데이트할 때 호프집에서 현이 설명했던 보충 촬영 계획을 상세히 기억했다. 현이 이 영화를 위해 언제부터

준비했고, 가족들로부터 돈을 얼마나 빌렸으며, 시덥잖은 알바를 하면서 몸의 어디가 상했고, 스태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그렇게 준비한 끝에 영화는 대부분 완성했고, 마지막 장면만 찍어 완성하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마음에 들게 편집까지 마쳤기에 나름 기대가 되다던 현의 말. 현이 온 서울을 돌아다니며 찾았다는 그 장소와 촬영 날짜까지 채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채는 설명이라도 듣고 싶었다. 이렇게 헤어지더라도, 자신이 어찌다가 이런 “충동적인 실수”를 하게 됐는지 변명이라도 하고 차이코 싶었다. 자신의 역사깊은 불안장애와 이유있는 통제벽에 대해 설명이라도 하면 혹시나 현이 참작해주리라는 희망도 있었다.

게다가 채의 자존심은 자신감과 뒤엎혀 2주간 이상한 변종으로 자라났다. 현이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로 사과하는 것보단 일단 만나서 해결을 보면 현은 용서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상한 직감이 채를 계속 부추겼다.

현의 보충 촬영일에 그곳으로 가면 현은 분명 환영해 줄 거라고. 채는 그건 분명 최악의 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채의 손가락은 폰으로 그날의 일정을 모두 비우는 중이었다.

※

다시 오늘, 현의 촬영 날. 오늘의 촬영은 녹록치 않다. 인물이 대교 위 인도를 걸어오는 씬의 내용과 연기, 그것을 담아내는 카메라워킹, 날씨, 행인들 통제까지. 지도교수도 현에게 한두 가지라도 좀 수월하게 수정해 찍으라고 할 정도였다.

현의 스텝들은 오늘만은 약속한 듯 “불길한데?” 농담을 하지 않는다. 오늘도 소품 상자에서 뭔가가 쏟아진대거나, 커피가 터진대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잔해들을 흔적도 없도록 조용히 수습해냈다.

현의 충직한 조연출 경은 대교 아래 한강공원 주차장 근처에 혼자 남아 무전기를 든 채 배우를 기다리고 있다. 경은 한동안 스마트폰으로 이런저런 연락과 일처리를 하고, 시계를 봤다가 모자를 고쳐 쓰기도 하며 알뜰히 시간을 보내다가 멀리서 오는 배우 준을 바로 알아보고 크게 손을 흔들어 안내한다. 배우 대기용으로 이미 다 준비해둔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괜히 한번씩 들쭉여보며 높은 목소리로 준을 맞이한다.

호리호리한 인상에 눈썹이 진한 준은 까딱 목인사를 하고 걸어온다. 경은 준이 오는 걸 보며 침을 한 번 삼킨다. 준은 현과 관계가 좋지 않다. 준은 현이 감당하지 못할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이 엔딩의 내용을

계속 바꿨고, 여러가지로 시간이 없다며 대화할 기회도 거의 주지 않았다. 의상이나 분장 같은, 배우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코멘트도 없어 준이 일일이 연락해 질문해야만 답장을 줄 뿐이었다. 준은 현에게 “나 좀 신경 써 줘”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만 빼 모든 방법을 통해 현이 마음에 들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준은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이것저것 꺼내 테이블에 올려둔다. 시나리오, 립밤, 에어팟. 경은 테이블에 분장용 피를 담아둔 유리병과 브러쉬, 팔레트를 올려두고 자신의 팔에 검붉은 물감을 죽죽 그어보며 점도를 확인한다. 언뜻 눈에 들어온 준이 시나리오를 펼치지도 않은 채 폰으로 릴스나 넘겨보고 있다. 경은 잠시 준의 조막만한 머리통을 뚫어지게 본다. 현이 "엔딩_수정고_8차.pdf"를 준에게 보내며 바뀐 부분을 잘 읽고 오라고 할 때도 경은 현의 옆에 있었다. 경은 준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다. 준은 다리를 떨기 시작하고, 플라스틱 테이블과 그 위에 놓인 유리병에까지 떨림이 전해진다. 경은 입술만 꼭 누르고서 마침내 피의 점도를 완성한다.

그때, 한강공원 주차장에 채가 도착했다. 채는 영화 촬영장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현이 보여준 사진들을 통해 학생 영화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었다. 분명 오늘, 이 다리에서 찍는다고 했다. 해가 지는 시간이니 아직 늦지 않았을 것이다. 다리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급해지지만 채는 차분히 이곳저곳을 살핀다. 현과 다른

스텝들이 어디 있는지는 보이지 않고, 모아둔 촬영 짐들과 간이 테이블, 그 주변의 두 사람이 채의 눈에 들어온다. 채는 지체없이 그 쪽으로 걷지만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 채는 현을 바로 마주치는 상황만을 예상했었다. 저들에게 물어보고 싶진 않다.

준은 어정쩡한 거리에서 멈춘 채를 흘끗 보지만 굳이 먼저 말을 걸진 않는다. 인기척을 느낀 경이 고개를 돌려 채를 본다. 경은 보자마자 채를 알아본다. 현을 오랫동안 좋아한 경은 최근 현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현의 인스타그램에서 채를 본 적도 있다. 정확히는 현의 인스타에서 채를 본 이후 채의 계정을 찾아내서는 들어가 살펴보기도 했다. 몇 주 후, 현이 얼마간 집중을 못 하는 걸 보고 헤어졌겠거니 짐작했다. 경이 다른 스텝들과 오늘 계속 참아왔던 그 한 마디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경은 채가 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때, 테이블에 세워 둔 무전기에서 우렁찬 현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준 씨 오셨죠? 뒤에 보이는 계단으로 끝까지 쪽 올라오셔서 강 쪽으로 이백 미터 정도 걸어오시면 저희 있어요!”

아니나다를까, 근처에서 얼떨이던 채가 망설임 없이 계단으로 향한다. 경은 마뜩찮은 손길로 일단 병을 내려놓고 채를 따라가다 얼마 못 가 뒤돌아 준을 본다. 준이 느긋하게 일어나서 거울을 든다. 피 스포이드병을 집어드는 걸 보니 분장을 스스로 하려는 것 같다. 경은 일단 채를 따라가 제지하려 한다. 채는 이미 계단 가까이 갔다. 경은 땀다.

뭐라고 불려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 하지만 등 뒤에서 준의 목소리. “조감독님...”

준의 얼굴과 셔츠 앞섶이 피범벅이다.

경의 얼굴이 아연해진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린다.

“준 씨 오고 계시나요? ... 아, 오시는구나! 멀리 걸어오시는 거 보여요. 음... 너무 급히 걸으시는데요?”

채는 다리 위를 걸어 현에게 간다. 채가 입은 상아색 마 셔츠가 바람에 심하게 날린다. 멀리서 바라보던 스탭들이 각자 중얼거리며 모래주머니나 털 커버 같은 것들을 꺼내 무장할 정도인데 채는 흔들림 없이 걸어온다. 이내 걸어오던 사람이 배우가 아니라는 걸 파악한 스탭들은 머쓱하게 각자의 장비들을 치워 채가 지나갈 길을 내준다.

채는 지나가지 않는다.

마침내 모니터에 고개를 처박고 있던 현이 고개를 들어 이 정체된 분위기의 원인을 파악한다. 현은 한숨을 쉰다. 현의 다른 충직한 스탭이 현의 손에 전자담배를 쥐어준다.

채는 현의 앞까지 다가간다. 채는 현이 조금이라도 모니터 앞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잠시라도 자신을 맞아줄 거라고 기대한다. 현은 채를 똑바로 보고 그대로 서 있다. 채는 자신을 특별대우해주지 않는 현에게 패심함을 느끼고 눈이 달아오른다. 현이 말한다. “지나가.”

채는 그대로 현을 지나쳐 대교를 걸어간다. 현은 모니터 앞에 앉는다.

바람이 잦아들고 노을이 완벽하다. 촬영감독이 신이 났다.

아까 채가 왔던 길로 얼굴이 시뻘건 준과 경이 걸어오고 있다.

"이번에도 행인 걸어오십니다! 자리 터 드려요. 음
... 저분은 과음하셨는데?"

경도 노을이 완벽한 걸 느꼈는지, 준을 두고 달려온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현에게 가서 사정 설명을 하는 경.

준 씨가 피를 얻었는데, 지우다가 다 번져서... 수습하려면 시간이... 얼굴은 클렌징 티슈로 지우면 되는데 옷이... 아까 그분 혹시 너 아는 사람이면... 옷이 흰 셔츠인데 어떻게 줌
...

현은 말없이 주먹을 불끈 쥔다. 경은 당연히 그것을 안다. 현의 모든 변화, 현의 모든 습관, 현의 모든 호흡과 말을 경은 원래 안다. 현은 땅만 본다. 경은 목이 타다못해 기침이 터지지만 소매로 입을 겨우 막고 현의 얼굴만 살핀다.

준은 웬지 모르게 지금 기분이 나쁘지 않다. 내 뒤로 완벽한 노을, 바람에 머리도 날리고. 준은 웬지 배에서부터 웃음이 나온다.

촬영 감독은 이제서야 렌즈를 통해 걸어오던 취객이 배우라는 걸 확인했다.

분장이 왜 저렇지? 하지만 노율이 너무 좋다. 머리도
날리고, 역광이 제대론데?
빨간 버튼을 눌러 일단 찍는다. 포커스를 기가 막히게
맞춰주는 촬영부가 기특하다.
준도 그것을 알고 있다. 아 또 기가 막히게 찍어 주네. 이럴
땐 나도 알아서 대사를 해야 한다.
촬영 감독은 자기가 렉 버튼을 눌렀음을 소리 없이, 손짓을
통해 뒤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스텝들은 당황하지만 곧 집중한다.

현은 결국 담배를 피운다. 경은 현을 보며 나도 한 모금만
들이마시고 싶다고 생각한다.
해는 지고 있다. 모니터 속의 준은 도취되어 있다. 이 빛,
바람!
촬영 감독은 행복하다. 이 자연스런 흔들림!
현은 모니터를 보다 그대로 머리를 묻는다. 채는 다리를 다
건넜다. 해가 졌다.